

GCF 사이드이벤트 : 파리협정 이행에서의 GCF의 역할

2016.11.17, 마라케시 ~ COP22에서 개최된 GCF 두 번째 사이드이벤트 주제는 파리협정 이행에서의 GCF 역할이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첫 번째 사이드이벤트는 현재까지 GCF 진행상황을 알렸다. GCF 공동이사의 주재로 GCF의 전략적 역할, 기후재정 지형에서의 GCF 역할, 대규모 재원조성을 위한 방법을 살펴봤다. GCF 파트너 국가와 인증기구 대표들도 함께 했다.

자히르 파키르 남아공 출신 공동이사는 GCF의 미래 포부를 밝히며, “GCF는 변혁, 한계를 넓혀나가는 것,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며, 포부와 그 포부를 실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GCF가 라이베리아와 네팔의 국가적응계획(NAP) 자금지원을 승인한 것은 기금이 신속한 지원 전달 및 국가 주인의식 증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웬 맥도널드 호주 출신 공동이사는 GCF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괄하며, GCF에게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GCF는 사업 파트너 및 함께 설계하는 투자의 수준 만큼 성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GCF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GCF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투발루 총리는 연안적응사업 지원을 결정해준 GCF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GCF가 생존의 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희망의 배를 보내준 것이다.” 고 말했다.

총리는 투발루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홍수를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현지의 지역사회 니즈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를 훈련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CF 인증기구 두 곳, 중남미개발은행(CAF)과 미주개발은행(IDB)에서도 각각 루이스 엔리크 베리즈베티아 부총재와 아말 리 아민 기후변화/지속가능성 부서장이 참석해 사례를 나눴다. GCF와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GCF의 잠재력과 민간부문을 활용한 대규모 재원마련에 대한 교훈을 이끌어냈다.

GCF는 현재 마라케시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 중이며, 블루존 중심거리 GCF 돐을 설치했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gcf-hosts-discussion-on-fund-s-role-in-implementing-the-paris-agreement?inheritRedirect=true&redirect=%2Fhome>